

제 11대 총여학생회 입장에서 해명 및 사과

< 장다혜씨의 이의에 대해서 >

1. ' 제 10대 총여학생회 연대사업국장 장다혜 - 구 13번째 대표/ 현동쪽 대표, 자치연합 대표 '

- 장다혜씨는 현 열세번째 대표이며 자치연합의 대표가 아닙니다. 총여에서 여성자치단체들과 다같이 면담을 하려고 주소록을 건네 받으면서 '장다혜씨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후, 장다혜씨를 여성자치단체의 대표로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연합의 경우, 여성자치연합(준)의 상태이며 아직 안정되어 있는 조직체와 같은 모습이 아닌 회의 테이블임을 밝힙니다.

2. '동쪽' 공간에 대한 언급에 대해

- 이것은 1번과 연결되는 문제로서 장다혜씨가 자치연합의 대표와 동쪽대표를 겸하고 있을 때, 학교의 공간 부족 상황을 인지한다면 동쪽 방을 여성자치단체와 함께 공유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술한 것에 대해 1번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지면서 2번 역시 무리한 언급이었음을 밝힙니다.

장다혜씨의 이의제기에 대해 위의 해명과 함께 장다혜씨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연세 학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전체 학우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임기 초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거울 삼아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창/조 제 11대 총여학생회